

‘경륜 이벤트 경주’ 10월까지 매월 1회 개최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29일부터 10월까지 매월 1회 경륜 이벤트 경주를 개최한다. 5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 아이디어 공모에서 선정한 4건의 제안을 경주에 도입했다.

우선 29일에는 ‘기수별 우수선수 대항전’이 열린다. 각 등급 기수별 평균득점 최상위 선수 7명이 겨루는 경주다. 광명 5경주(선발급), 광명 12경주(우수급), 광명 16경주(특선급)에 등급별로 편성된다. 8월 26일에는 2010년 이후 이사장배 왕중왕전 입상선수 중 평균득점이 유사한 선수로 편성한 ‘왕좌의 게임’이 열린다. 9월 23일에는 온라인 고객투표에서 등급별 득표 상위 7명이 출전하는 ‘누리꾼배 인기선수 경주’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10월 21일에는 광명 39화차까지 평균득점 최하위 7명이 ‘승리의 발판’이라는 이름으로 격돌한다.

이번 이벤트 경주는 하루 빠른 예약이 가능해 해당 회차 편성이 공개되는 수요일 오후부터 구매할 수 있다.



이홍복 총괄본부장(오른쪽)과 이철희 중앙대 광명병원장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 응급환자 논스톱 진료 등 의료 지원” 국민체육진흥공단-중앙대광명병원 맞손

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주사업총괄본부는 22일 중앙대 광명병원에서 이홍복 경주사업총괄본부장과 이철희 중앙대 광명병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중앙대광명병원은 경륜 경주 중 부상 발생 등 응급환자에 대해 논스톱 진료, 최적의 의료서비스와 아울러 건강검진 등에 대한 의료확인 혜택을 제공한다.

경주사업총괄본부는 의료기관 홍보를 위해 영업장 내 홍보물 게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협약체결 후 이홍복 본부장은 중앙대 광명병원 내 응급의료구역, 재활치료실, 병동 등을 둘러보며 선수들의 응급상황 시 진행되는 진료과정을 확인했다.

편집 | 한민규 기자 slope@donga.com

경륜 하반기 등급조정 한 달째...

선발·우수급 박힌 돌 앞에 ‘이번은 없다’

강급자 부진 속 기존 강자 강세 뚜렷
“40세 이상 마크추입형 강급자가 주류”
금·토 경주에서도 번번이 입상 놓쳐

하반기 등급조정이 실시된 지 4주가 지났다. 생애 첫 선발급으로 강급됐던 양희진(11기)은 9연속 입상으로 특별승급에 성공했다. 권혁진(21기), 최지윤(12기), 이흥주(7기)는 6연속 입상을 기록했고, 윤민우(20기)는 3연승에 성공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대다수 강급자들은 요즘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며 부진하다. 특히 자력상부 능력이 부족한 40대 이상 노장 마크추입형들은 비교적 편성의 여유가 있는 금, 토 경주에서도 입상 실패를 하고 있다. 일요일 결승도 매 회 강급자들이 인기순위 상위에 오르지만, 정자 결과를 보면 동반입상에 성공하는 경우가 드물다. 오히려 등급별 기존 강자들에게 입상권을 모두 내어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3일 광명 선발 결승에서는 정언열, 김광진이 각각 인기순위 1, 4위로 출전했다. 그러나 두 선수 모두 초조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지 못한 채 대열 맨 후위로 밀렸다. 이상 기류를 감지한 정언열은 선두유도원 퇴파 후 기습적으로 치고 나갔지만 전영조에게 쫓기기를 맞으며 끝까지 밀렸다. 후위권에서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던 김광진은 6착에 그쳤다.

반면 전영조는 2착, 전영조를 마크했던 고재필은 추입까지 연결하며 1착, 고재필을 마크했던 고재성은 3착을 하는



광명스피드에서 선수들이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하반기 등급조정 이후 강급자들이 예상외로 몇몇을 제외하고는 우수 및 선발급에서 젊은 기존 강자들의 기세에 밀려 고전하고 있다. 사진제공 |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기존 강급자들이 입상권을 싸잡아 빼앗겼다. 강급자들이 동반몰락하면서 이날 쌍승 88.1배, 쌍복승 493.1배, 삼쌍승 690.4배가 발생했다.

10일 창원 우수 결승도 경기 전에는 특선급 출신 임진섭, 정윤진이 각각 인기순위 1, 3위를 기록해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최순영이 선행형 강동규 뒤를 따라가던 두 선수를 상대로 쫓기기를 펼치더니 결승선 앞에서 강동규마저 잡으며

우승을 했다. 강동규를 추주하는데 몰두했던 임진섭은 5착, 가까스로 추입에 나섰던 정윤진은 3착을 했다.

부산 선발 결승에서는 강급자 이흥주와 기존 선행형 강자 이주하가 사이좋게 1, 2착을 나눠가졌다. 반면 인기순위 1위인 정승은 4착, 우수급 출신인 최성일, 황종대는 각각 3, 5착에 그쳤다. 17일 특별경륜으로 치러진 부산 우수 결승에서는 강급자 윤민우가 우승을 차지

했으나 2, 3, 4착은 기존 강급자들인 윤현준, 김치범, 김우영에게 돌아갔다.

●기존 강급자 팀플레이도 돋보여

17일 광명 선발 결승에서는 기존 강급자들의 팀플레이가 돋보였다. 강형목의 선행을 심분 활용했던 엄지용이 자신을 마크하던 최지윤을 막아내고 1착, 강형목도 3착을 하며 쌍승 19.0배, 삼쌍승 89.3배를 합작했다. 창원 선발 결승에서는 우수급 출신 신양우가 우승했으나, 또 다른 우수급 출신 정언열은 6착에 그쳤다.

특선급 출신 신동현, 오기호, 정윤진이 출동한 24일 창원 우수 결승도 오기호의 선행을 활용했던 신동현은 우승을 거머쥐었으나 2, 3착은 기존 강급자들인 김지광, 김주석이 차지하면서 쌍승 33.3배, 삼쌍승 204.9배의 이변이 연출됐다. 이밖에 부산 선발 결승도 4명이나 진출한 우수급 출신 중 강측으로 나섰던 최지윤만 우승을 차지했을 뿐 나머지 광충원, 김재훈, 김광진은 5, 6, 7착으로 밀렸다. 광명 우수 결승 역시 기존 강급자들의 독무대였다. 인기순위 중하위권의 김명섭, 김성현, 이진원 순으로 결승선을 통과해 쌍승 111.1배, 쌍복승 399.7배, 삼쌍승 882.5배의 고배당이 터졌다.

예상치 경륜박사의 박진수 팀장은 “선발 결승에 출전하는 강급자들은 40세가 넘는 마크추입형이 주류를 이루다보니 젊은 패기의 기존 강급들과 맞붙어 확실한 우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고 최근 경향을 설명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후반기 이번 속출...경정 판도 심상찮다

주선보류 2회 받은 황만주 상승세
김지영 등 신예들 맹활약도 눈길

시즌 하반기 경정 판도가 심상치 않다.

시즌 후반기를 시작한 28회차 1일차부터 미사리 경정장에서는 이번이 속출하고 있다. 우선 눈길을 끈 것은 주선보류 2회를 받은 황만주(1기 B1)의 깜짝 활약이다. 황만주는 13일 1일차 4경주에서 과감한 1턴 휘감기 승부로 강자인 장영태(1기 A1)를 제치고 하반기 첫 승을 거두었다. 2일차

15경주 2착, 21일 29회 2일차 13경주에서도 3착을 기록했다. 전반기 1착이 단 4회였던 점을 생각하면 하반기 불과 5회 출전에 3회 입상은 주목할 페이스다. 신예들의 활약도 눈길을 끈다. A2등급으로 시작한 김지영(15기 A2)은 28회 1일차 9경주에서 주도적인 스타트 속에 차분한 찌르기 전개로 1착을 했다. 16기 대표주자 나종호(A2)도 28회 1일차 10경주에서 최강 스타트를 자랑하는 김효련(2기 A1)보다 빠른 0.12초의 스타트를 펼치며 휘감기 전법으로 삼쌍승식 304.4배를 기록했다.

5기 이종인(B1)도 첫 출전인 28회 2일차 3경주에서 모터의 열세를 극복하며 차분한 찌르기로 1착 입상에 성공했다. 이종인은 올 시즌 전반기부터 경주의 질이 좋아진 모습을 보이며 4승을 거두고 있었다.

현재 7명이 활동 중인 12기 선수 중 조성인, 류석현, 한성근, 김인혜는 꾸준한 활약으로 경정 팬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특히 박준현(A2)은 지난해와 달리 전반기 10승으로 꾸준한 활약을 펼치며 개인 최고 시즌이 기대되고 있다. 최고참인 오세준(1기 B2)도 2017년 10승 이후 두 자리 승수를 기록하지 못하다가 올 시즌 전반기 3승에 이어 하반기 두 번째 출전에서 1착을 기록했다.

한편 김재현(15기 B2)은 20일 29회 1일

차 3경주에서 1코스에 출전해 0.22초의 스타트를 활용해 가장 먼저 1턴 마크를 돌아 생애 첫 승을 신고했다. 2018년 7월 데뷔한 이후 무려 158경주 만이다.

물론 후반기에 이번만 속출하는 것은 아니다. 김종민은 시즌 31승으로 여전히 다승왕 타이틀을 노리고 있고, 지난해 플라잉으로 어려움을 겪다 이번엔 A1등급으로 복귀한 심상철도 하반기 승수를 쌓고 있다. 안지민도 시즌 13승으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김인혜는 하반기 들어 6회 출전 중 1착 5회, 3착 1회를 거두었다.

이서범 경정코리아 분석위원은 “선수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스포츠 종합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의 미래 그린다

29일 학교체육진흥포럼 개최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가 29일 오후 2시 서울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픽아홀에서 ‘2022 학교체육진흥포럼’을 개최한다.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학교체육의 중요성과 역할 강화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새 정부 원년에 학교체육 정책의 현주소와 개선방안 및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과 학교체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정부 인사, 시도체육회 및 회원종목단체, 시도교육청, 각급 학교체육 관계자, 체육유관단체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학교체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현장에 참가할 수 있다.

포럼은 김택천 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장의 ‘학교체육정책 개선과 시행을 새 정부에 요구한다’는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이승배 안산화정초 교사의 ‘초등 1·2학년 체육교과를 독립 운영해야 한다’ ▲김기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의 ‘중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을 스포츠활동으로 별도 운영해야 한다’ ▲조종현 평촌고 교사의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의 체육과목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김종우 서울체육고 교감의 ‘지속가능한 학생선수 발굴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등 총 4개의 세부 주제에 대해 발표를 실시하고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포럼이 올해 하반기 확정된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해 체육현장의 목소리를 새 정부에 전달하고, 학교체육 관계부처·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형모 기자 hmyang0307@donga.com

위믹스 KPGA 구단 리그 올스타전 ‘별들의 전쟁’

허인회·황중곤 등 20명 출전
내달 6일 스크린골프 샷대결

한국프로골프협회가 ‘위믹스 2022 KPGA 프로골프 구단 리그’의 올스타전인 ‘위믹스 2022 KPGA 프로골프 구단 리그 올스타 챔피언십’에 나설 최종 선수 명단 20명을 발표했다.

위믹스 2022 KPGA 프로골프 구단 리그 올스타 챔피언십은 ▲희망 ▲나눔 ▲도전 ▲열정 4개 팀으로 나뉘어 각각 5명씩 총 20명의 선수가 출전한다. 각 4개 팀은 4강전과 순위결정전을 통해 우승팀을 가린다.

올스타 선수 20명은 13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팬 투표를 통해 선발됐고 이번 팬 투

표에는 총 2330명이 참여했다. 팬 투표는 위믹스 2022 KPGA 프로골프 구단 리그에 참여하고 있는 구단 소속 선수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각 구단 별 최다 득표 선수가 우선 출전권을 획득했다. 해외투어 일정으로 경기에 참여하지 못하는 선수가 발생할 경우 구단 내 차순위 득표자로 대체됐다. 한 구단에 소속된 선수들이 모두 불참할 경우에는 전체 투표 순위 결과에 따라 상위 득표자 순으로 출전 자격이 부여됐다.

위믹스 2022 KPGA 프로골프 구단 리그 올스타 챔피언십은 8월 6일 대전 유성구 소재 골프존 조이마루 전용 경기장에서 개최된다. 골프존 투비전 프로(TWOVISION PRO) 시스템을 통해 진행되며 스크린 골프존TV, 유튜브 골프존 채널, 네이버 스포츠

및 다음 스포츠에서도 생중계된다.

팀별 출전 선수 명단

▲희망-배용준(22·CJ온스타일), 오승현(21·대보건설), 이우석(22·우성종합건설), 정한필(31·도회에드가), 최진호(38·COWELL)
▲도전-황중곤(30·우리금융그룹), 박성국(34·이엠제약), 정재현(37·지벤트), 최이삭(42·휴셈), 최승민(21·CJ온스타일)
▲나눔-허인회(35·금강주택), 이상희(30·무궁화신탁), 김민수(31·불빅), 김한벨(26·SK텔레콤), 박준홍(21·우리금융그룹)
▲열정-전성현(29·웹캐시그룹), 함정우(28·하나금융그룹), 맹동섭(35·BRIC), 최효영(25·NH농협은행), 정찬민(23·CJ온스타일)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